문화광장

# 멈춰야 한다

장 수 명
동화작가

더워도 너무 덥다. 지역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온열질환자 중 31.9%에 달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 찬 온실 속에 갇힌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의 폭염은 처음 겪는다.

그제, 휙 지나치는 차창으로 황구 한 마리를 보았다. 마당 한 귀퉁이에 묶여서 채 빠지지 못한 빛바랜 털 뭉치를 몸 곳곳에 듬성듬성 달고 있었다.

'털갈이하는구나.' 의례적인 생각으로 무심히 넘겼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더운 날에 꼼짝없이 묶여 뜨거운 지열과 습기를 잔뜩 물고 있는 이 날씨를 견디고 있을 황구를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던 새우가 물속에서 빨갛게 익어서 발견되었다는 뉴스, 20대 젊은 사람이 지병이 있었다곤 해도 집안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 등을 연일 접하고 보니, '오지랖을 피워서라도 묶여 있는 황구에게 다가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

지금 인류는 폭우나 폭설 등 엘리뇨와 라니냐 같은 매년 기상이변의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곳곳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生命)을 앗아가고 자유(自由)를 유린(蹂躪)하며, 수많은 살상(殺傷) 무기(武器)를 사용해 지구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자정(自淨)의 노력은 물론 책임 의식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기상이변은 당연한 현상이며, '인류멸망설'이나 '지구멸망설'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手順)일지도 모를 일이다.

전쟁은 멈춰야 한다. 내 아이들의 아이와 그 아이들의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제대로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간 국제기구 UN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능을 상실한 것인지 묻고 싶다. 21세기에 전쟁을 일으켜 인권을 유린한 전쟁국의 지도자들과의 교섭은 하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UN은 지금 차기 사무총장 선출에 예비투표진행과 본투표 준비로 여념이 없다고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나 보통 중임으로 10년을 임기 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무총장 선거에 무엇보다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전쟁을 발발(勃發)한 국가, 원하는 자가 차기 UN사무총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이번 월드컵경기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장본인이며, 그의 요구를 들어줘서 스포츠맨십을 무너뜨린 자가 세계기구의 수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5개 상임이사국은 무엇보다 예의 주시해,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열린마당

# 손 끝에 머문 자연의 색 '천연염색 한마당 축제'

이 미 숙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갈옷을 옷에 물들여 일할 때 입었다. 갈옷을 입히면 열전도율이 낮아져 시원하며 통기성이 좋고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감즙으로만 염색하는 자연 친화적인 염색기법이다.

제주의 노동복이면서 생활복으로서 제주인의 생활 속 문화유산인 제주 갈옷은 은은하면서도 깊은 멋을 낼 수 있어 현대인의 우아한 패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천연염색 홍보 행사를 2012년부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해 매해 8월에 개최하고 있다.

'2026년 천연염색 한마당 축제'는 '손 끝에 머문 자연의 색(色)'을 주제로 8월 8일과 9일 양일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인 천연염색 패션쇼는 8일, 9일 오전 10시30분 행사장 주무대에서 열려 제주 갈옷뿐만 아니라 천연염색 소품까지 어우러진 멋스러움을 보고 즐길 수 있다. 또한 600명을 대상으로 한 갈물염색 교육·체험, 쪽물을 활용한 리폼 체험, 천연염색 제품 전시 및 할인판매, 농촌융복합 사업장 무료체험 이벤트, 천연염색 전시실 등이 운영된다.

제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천연염색 한마당 축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 송창권 "도당위원장 선거 공정히"

### 경쟁자 문대림 후보 직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이 경쟁자인 문대림 국회의원을 향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자고 요구.

송 후보는 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의원이 지역위원장 활동을 빌미로 읍·면·동 권리당원은 물론, 심지어 타당 핵심 당원들까지 불러 치맥으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당위원장 선거 기간 내내 치맥을 앞세운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하자"며 "임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록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안간힘

○…가뭄과 고온 날씨 지속으로 한창 파종기를 맞은 당근 등 월동채소 재배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안간힘.

공사는 직접 관리나 위탁 관리중인 저수지와 관정 등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로 상시 공급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간이급수대, 물차, 양수기 등을 활용한 비상급수에 나설 계획.

농어촌공사 제주본부는 "초기 가뭄 단계부터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의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사설

# 기후위기 대응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시급

연일 폭염에 따른 가뭄 현상으로 농작물 파종에 차질을 빚는 등 1차 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제주를 복합 기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집중됐던 농업재해가 최근에는 봄철 우박·냉해, 겨울철 대설·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가뭄·병해충 등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현상이 발생해 당근 파종이 차질을 빚고 농업용수 부족까지 발생하고 있다. 제주는 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월동채소 피해, 봄철 강풍과 우박에 따른 벌마늘 피해에 이어 여름에는 호우와 폭염, 가뭄까지 반복되면서 연중 농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작목 역시 감귤과 레드향, 마늘, 월동채소, 메밀, 당근 등 제주의 핵심 고부가가치 작물에 집중되고 있다. 문의원은 "제주를 기후변화 대응 농업 복합재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과 농업용수 확충,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선제적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한 농업분야 재해는 해마다 반복되면서 그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복합적인 농업재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만큼 지원체계와 대응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상황과 피해작물 중심 지역 맞춤형 지원과 대응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백약이 무효'

민선8기 내내 증가세를 보였던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3000호에 육박하면서 민선 9기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말 도내 미분양 주택은 2909호로 지난 5월보다 105호가 늘었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 11월 2851호를 뛰어넘는 물량이다. 게다가 소위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4%인 2339호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월보다 74호가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워 건설사 등 주택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세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주자치도는 다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할인 분양과 잔금 유예, 가전제품 제공 같은 혜택에 더해 세금 감면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 '주택 상생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쌓이면서 제주자치도 차원의 대책은 '백약이 무효'이다.

이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기본 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특례를 연장해 지방의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요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1주택자'로 지위를 유지해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계도 서울에 버금가는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웅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의사
616-08-85402